

“대선·지방선거때 열심히 안 댄 의원 물갈이” 주승용 의원, 최고위원직 복귀하나

문재인 대표·김상곤 위원장 잇단 요청에 “속고하겠다”

새정치 혁신위, 의총서 총선 공천심사때 평가항목 공개

현역 교체지표로 선거기여도·공약이행·지역활동 추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지방선거나 대선 때 정당 후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공천 심사시 불이익을 주는 공천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혁신위 공천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의원총회에 참석, 총선 공천 때 국회의원 공천심사를 위해 적용할 평가항목을 설명한 뒤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 문건에 따르면 혁신위는 19대 총선 공천심사 때 이미 적용한 ▲ 여론조사 ▲의정활동평가 ▲다면평가 외에 내년 20대 총선부터는 ▲선거기여도 ▲공약이행 ▲지역활동을 새로운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약이행 평가는 의원이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게시된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선거기여도는 지방선거나 대선 때 자신의 지역구 선거결과를 토대로 사후 평가하는 것이다.

또 혁신위는 지역위 조직과 운영 상황, 대민활동 등을 기초로 한 지역활동도 새로운 평가지표에 포함하기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당선 후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민과의 약속인 총선 공약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공천 심사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선거나 대선의 경우 후보가 자기 계파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심히 돕지 않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계파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선거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평가를 임기 4년

간 2차례 실시해 임기 내내 의정 활동은 물론 지역구 활동에도 충실하도록 했다.

19대 총선 때는 의원이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다면평가만 도입했지만 20대 총선부터는 당직자의 의원평가도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직자의 평가도 객관적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항목별 평가결과를 취합한 결과를 단일한 수치인 교체지수로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현역의원 교체비율 등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오는 12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방안을 마련한 뒤 16일 당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18대 총선 공천심사 때 현역의원 평가 지표로 여론조사와 의정활동을 50%씩 반영했다가 19대 총선에서는 여론조사 40%, 의정활동 평가 30%, 다면평가 30%로 바꿨다.

가와 절대평가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오는 12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방안을 마련한 뒤 16일 당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18대 총선 공천심사 때 현역의원 평가 지표로 여론조사와 의정활동을 50%씩 반영했다가 19대 총선에서는 여론조사 40%, 의정활동 평가 30%, 다면평가 30%로 바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도부 복귀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문 대표와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의원정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도 새정치의 ‘브랜드’라는 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도 좋지만, 비례대표 선정 절차를 투명화해야 하며 혁신위의 친노 패권주의 청산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권 관계자는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구체적 결과도 없는데 주 의원이 지도부에 복귀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혁신위 활동이 마감되면서 통합의 흐름이 형성됐을 때 지도부 복귀에 나서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김상곤 혁신위원장(왼쪽), 조국 혁신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창지역 새정치 당원 100여명 탈당

“정동영 전 의장과 사전 교감 없었다” 선긋기

순창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원 100여명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첫 탈당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탈당 인사들은 순창출신 정동영 전 의장과 사전 교감에 선을 그었다.

정재규(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특별보좌관), 유영선(전 국정원 서기관) 등 새정치연합 소속 순창지역 당원 10여명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과 민심을 받들며 정통 민주당의 맥을 잇는 개혁적인 대안 신당의 밑줄이 되겠다”며 탈당 명분을 설명했다.

이들 “지금은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 정당이 나온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 안으로 새정치연합에 탈당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일단 새정치연합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새정치연합은 여당에 질질 끌려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야당에 유리한 환경에서도 특정세력의 편파 공천으로 인해 결국 각종

재보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친노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는데 (당원과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향인 순창에 내려와 침거 중인 정동영 전 의장과 사전 교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번 탈당은) 정동영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논의할 사항도 아니다. 오비이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동영씨와의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정 전 의장과 어떤 교감을 가질 지는 모를 일지만 일단은 자발적 의지로 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오늘 전북에서 동학혁명의 횃불을 올리는 심정으로 탈당을 한다”면서 “이번 탈당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탈당과 ‘호남신당’을 주도하는 천정배 의원측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광주 쪽 사람들과고 상의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친박 의원 20여명 러시아 동부 항일유적지 탐방

야, 내일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서 현장 최고위 개최

정치권 광복 70주년 행사

여야 정치권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소속 의원 20여명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러시아 동부 일대를 방문, ‘역사 탐방’을 한다. 회원들은 2박3일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를 방문해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 열사 유허비 등 항일유적지 탐방을 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12일 경의선 철도역 중 하나인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의 전

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아울러 16일께 광복절 기념 기자회견을 추진 중이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0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임상미술치료 작품전 ‘역사가 된 그림’ 전시회를 연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작품은 물론, 이들에 대한 치료 과정을 담은 사진 기록물 등이 전시된다.

한편,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광복 70주년 기념 ‘8·15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하루 판매량 1천부 육박

광주 영풍문고 개점 이래 최다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쓴 ‘누가 지도자인가’ 책이 연일 정치사회분야 1위를 기록하면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특히 지난 8일 광주 영풍문고에서 열린 저자 사인회가 대성황을 이루면서 하루 최대 판매 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영선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누가 지도자인가’ 저자와의 사인회가 열린 영풍문고 광주점에서 970부가 판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영풍문고 광주점이 지난 2006년 개점 이후 단일 책으로써는 하루 최대 판매 부수다.

영풍문고 광주점 관계자는 “광주점에서 아이돌 등 연예인 사인회가 간혹 열려 책이 판매됐지만, 박 의원 책만큼은 팔리지 않았다”며 “역대 단일 책으로는 하루 최대 판매부수”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출간된 박 전 원내대표의 ‘누가 지도자인가’(마음의 숲)가 한 달여만에 전국적으로 1만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초판으로 3000권을 판매했지만, 3일만에 완판을 기록했으며, 밀려있는 예약 수를 감안해 현재 4쇄를 찍기 시작했다”면서 “연일 정치사회분야 도서 중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이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